

## 오피니언

### 사설

# ‘등록금 인상’ 갈등을 풀어갈 해법

등록금 인상을 두고 대학과 학생사회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오래전 자주 보던 장면이다. 등록금 인상은 단순히 대학의 요구와 학생 부담 가중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동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늘어나는 등록금 수입이 어느 정도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될지를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세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재정 악화라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16년이나 마주한 대학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학교를 포함한 대다수 대학의 등록금 인상 기조는 유일한 선택지일지 모른다. 그런 기조 위에 우리대학은 시설 노후 및 물가 상승을 이유로 ‘3.19%’ 인상을 발표했다. 당연한 수순으로 학생 사회는 “0.1%를 인상하더라도 인상 자체

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서로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이다.

팽팽한 등록금 인상 논의는 매년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을 ‘어떻게’ 산출할지에 대한 기초적인 상호 협의가 더욱 필요하다.

대학은 물가상승률을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언제까지 해당 지표에 기댈 수만은 없다. 법정 상한선에 맞춘 단순한 수치 제시가 아니라, 어떤 근거로 인상을 산출했는지, 학생사회와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이를 부담할지, 인상분은 어떤 변화로 이어지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산출하고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금 인상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등록금이 동결된 기간동안 학생도 교육환경

의 저하를 함께 부담해왔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명확한 산출식 없이 매년 반복될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합리적인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상률에 대한 명확한 산출식을 마련하면,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 측의 설명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등록금 고지서 발행 직전에야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직전년도 2학기 초반부터는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이 차기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수입과 지출계획을 제안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등록금 인상 논의의 핵심은 ‘얼

마나 올릴 것인가’가 아니라 ‘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있다. 학교가 말하는 재정 압박이 불가피하다면 그 부담을 대학과 학생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부담할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우선 고민해야 한다.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타대학 대비 결코 적지 않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대학은 재정 확충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속시원히 밝혀야 한다.

인상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반복될수록 필요한 것은 주장과 대립이 아닌, 수치와 구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다.

등록금이 더 이상 불신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학생을 설득의 대상이 아닌 논의의 주체로 세우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고립

## 고립의 책임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청년 1인가구 연속기획의 마지막 회차로 고립·은둔청년을 취재했다. 이 회차를 끝으로 연재를 마무리하며 분명해진 생각이 있다. 고립·은둔청년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설명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고립은 특별한 사례가 아닌, 구조적 조건이 맞물릴 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 가까웠다.

취재 과정에서 접한 고립·은둔청년의 사례는 극단적이지 않았다. 이들은 한때 학교에 다녔고, 진로를 고민했으며 도움을 요청한 경험도 있었다. 다만 그 요청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고립은 반복된 좌절이 누적된 결과였다.

취재를 통해 확인한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복’이 이들에게선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이다. 대화가 가능한지, 그들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신호였다. 이들의 시간은 느렸고,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속도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 간극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와 시선은 고립을 오히려 고착시킬 가능성이 크다.

지원 방식 역시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현행 제도는 신청과 참여를 전제로 설계돼 있지만, 실제 고립·은둔청년은 ‘신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 수차례의 방문과 대기, 반복적인 접촉을 통해 신뢰를 쌓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역사회 주도의 찾아가는 지원과 같이 장기적 접근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번 청년 1인가구 연속기획은 개인의 생활 방식을 통해 사회적 조건을 바라보는 시도였다. 그 끝에서 만난 고립·은둔청년은 고립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을 개인에게만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혼자 사는 삶이 보편화된 사회에서 고립·은둔청년을 예외로 보지 않고, 관계가 단절로 이어지는 과정을 예방하고 먼저 찾아가 연결하는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만평 현실의 틈 속 외로움

### 세시봉

## 무너진 상아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최근에 지원한 아르바이트 열 군데에 연속으로 떨어졌다”는 친구의 경험담을 듣고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너무 많은 경쟁에 대해 생각했다. ‘금턴’이라고 불리는 인턴 채용 경쟁부터, 여러 자격증이 필수였던 공군 입대 경쟁도 떠올랐다. 경쟁에서 밀려나는 아픔보다 내게 더 쓰쓸한 건 경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우리의 태도다. 어릴 때부터 성적으로 옆자리 친구를 놀려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았기 때문일까, 우리나라 경쟁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중고등학교와 다를 바 없는 대학의 학생 평가 기준에 의문을 가지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대학의 목적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으로서 대학에 몸담았던 내겐 생소한 문장이다.

적어도 내가 봤을 땐 ‘인격을 도야하고, 심오한 학술이론을 연구하는’ 학생 보단 ‘좋은 학점을 받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생이 훨씬 많았다. 시험기간마다 오면 여유롭던 중앙도서관에 자리가 부족해진다. 그때만 갑자기 모여 똑같은 강의자료를 암기하고 똑같은 시험을 통해 우등생과 열등생으로 나뉘는 우리의 모습은 독서실 다니던 중고등학생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고 있으면서도 이상함을 감지하지 못한다.

과거에 대학은 속세에서 살짝 벗어나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상아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지금은 아무도 대학을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대학 입시 경쟁에 지쳤고, 졸업 이후에도 취업 경쟁을 피할 수 없을 우리가 잠깐 경쟁에서 벗어날 곳은 대학뿐이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짧은 시간조차 경쟁에 허덕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변화 없이 시간만 흐른다면 10년, 20년 뒤 대학의 가치는 더욱 퇴색될 수밖에 없다. 경쟁만이 남은 사회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지금 이야기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때다.